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1년 5월 제255호 http://cnmhs.net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강신열 편집인 : 이우정 인쇄인 : 한흥교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분위기 쇄신하여 일하는 동문회 만들어보겠다"

강신열 총동문회장 16개 세부 계획 발표하고 동문 의견 수렴키로

제18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한 강신열(14회. 청명종합기계 대표이사) 회장이 의욕적으로 총동문회 운영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4회를 비롯한 동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강신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현실에서 선배들이 어렵게 이뤄놓은 동문회 전통을 터전삼아 멋있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총동문회가 화합하고 협력해 동문인 이종업 교장의 학교 쇄신 발전 계획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강 회장은 제18대 총동문회 운영방침으로 "1. 화합 2. 체계 확립"을 정하고 운영방안으로 "1. 상호 존중, 존경하는 동문윤리를 준수한다. 2.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유지한다."를 정하는 한편, 16가지의 세부시행사항을 수립했다.

세부시행사항을 살펴보면 "1. 조직정비(총동문회 밴드 통해 조직 전체 공개모집, 임원 및 면담, 공개 모집 후 개별 통보) 2. 조직개편 완료 후 조직직제표 수정 3. 각 기수별 동문회 전화번호, 주소 파악(총무) 4. 총동문 전체 회원 전화번호 현황파악(총무) 5. 총동문 전체 회원 주소 현황 파악(총무) 6. 설송신문 배송도착 확인(총동문 전체 회원) 7. 총동문회 공식 밴드 활성화(현재 364명 가입을 1000명으로 확대 1차 목표) 8. 거래업체 발주 현황, 발주처 발주단가 재정비 후 공개 입찰(설송신문, 인쇄물, 상패, 화환 등) 9. 일일업무 보고서 작성(총무) 10. 일일 결산서(총무) 11. 회의록 작성 보관(총무) 12. 고문, 자문위원, 임원 단합 모임(연 2회) 13. 각 기수 회장단 활성화 모임(연 3회) 14. 각 기수별 동문회 결성 활성화 지원 15. 대외 홍보(동문업체 방문, 불우 동문 지원 검토, 이웃돕기 봉사활동) 16. 복지사업(쉼터 운영, 온라인 운영)" 등이다.

강신열 회장은 "코로나 시국이 엄중한 상태에서 사람이 동원되는 일부 계획은 코로나가 잡힐 때 까지 시행이 어렵다"며 "상황을 봐가며 현명하게 가능한 계획부터 차근차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한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동문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겸허한 마음가짐을 고수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선배님을 비롯한 모든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목한 가운데 일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14회 동문들이 총동문회사무실에서 강신열 신임회장에게 명패를 전달했다.

"올 가을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요청"

강신열 회장 등 허태정 대전시장 예방

강신열 총동문회장은 4월 27일 오후 대전시청을 방문하여 허태정 대전시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우정 총동문회 고문과 이종호 대전시의원(13회), 백채준, 한흥교 동문이 참석했다.

강신열 회장은 "올 가을 대전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데 충남기계공고가 본부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며 "대전시 차원의 주변 환경 개선 등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충남기계공고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호국보훈의 달 기념 오영안장군, 임재엽상사 추모식

6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모교 호국영웅동산에서 봉행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모교 동문인 고(故) 오영안 장군(4회) 25주기와 고 임재엽 상사(38회) 11주기 추모식이 6월 4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모교 교정 오영안 장군 동상과 임재엽 상사 동상이 모셔진 호국영웅동산(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앞에서 열립니다. 두 사람의 순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충남기계공고 총동문회가 주최하는 이날 추모식에는 모교 교직원 · 학생, 총동문회 동문들과 학부모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안내 : 총동문회 사무국(☎ 252-5656)》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강 신 열

“총동문회와 지역, 직능, 학과별 동문회 유대관계 강화”

〈강신열 18대 총동문회장 취임사〉 조직체계 확립 투명한 시스템 만들어 갈 터

존경하는 충기 동문 여러분!

제18대 총동문회장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충남기계공고는 중부권 최대의 특성화고교로 그동안 3만 4천여 동문이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 활동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어 명문학교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총동문회는 21세기 최첨단 시대의 조류에 발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문회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모교의 현안이 곧 동문회의 현안이고 동문회에 과제가 있다면 이 또한 모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됨에 따라 특성화고교의 전반적인 위기를 맞아 가장 시급하고도 당면한 현안으로 학과개편을 비롯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초 동문 중에 처음으로 이종업 교장이 부임하여 열정적으로 뛰고 있어 총동문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저는 총동문회장의 중책을 수행하면서 무엇보다도 동문 선후배 간에 화합을 가장 중시하면서 임기 동안 동문회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운영방침을 제의합니다. 첫째는 화합하는 총동문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회원들의 화합 여부가 발전과 퇴보의 갈림길이 됩니다.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다독이며 서로 돕고 사는 친형제 못지않은 동문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호 존중하고 존경하는 동문윤리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문회는 해외는 물론 전국 각지 각계에서 지역, 직능, 학과별로 활성화되어 있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

는 총동문회와 지역, 직능, 학과별 동문회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산하 동문회가 총동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계를 확립하여 투명한 총동문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극적, 수동적 역할에서 탈피하여 모교와 동문,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총동문회의 체계를 확립하여 내부 역량을 정비하고 결집하여 우수한 인재 유치, 대외적 동문 인재 양성, 장학사업의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방안 마련 및 지원 등을 통해 충기 동문회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견인차가 되고 국가발전의 동 량과 주체가 되는 그 날까지 다함께 힘을 모으는데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의 행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1년 5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강 신 열 올림

총동문회밴드에 ‘사무총장 등 임원 추천’ 공고, 동문들 뜨거운 반응

사상 처음 공개 모집에 “참신한 발상” “후배들에게 기회 달라”는 의견 많아

강신열 제18대 총동문회장이 취임하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총동문회 임원들을 공개적으로 추천받기 위해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5월 20일 공고를 올리자 동문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사무총장에 대한 추천이 잇따랐다. 다음은 공개모집 안내 게시글과 추천 댓글 중에 몇 개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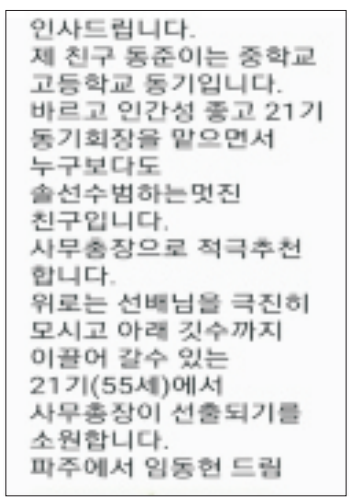
〈총동문회 임원 공개 모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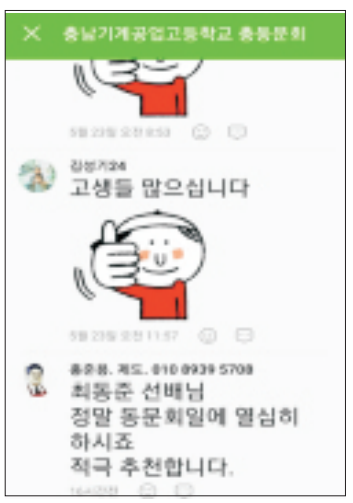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총동문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8대 회장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 동문회에서 봉사하실 동문님들의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지원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총장 ▲재무국장 ▲사무국장 ▲조직국장 ▲사업국장 ▲홍보국장 ▲복지국장 ▲회보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실 동문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원하실 분이나 추천하실 분들은 5월 31일까지 밴드 댓글이나 동문회 사무실(042-252-565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댓글〉

1.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총동문회를 무탈하게 이끌어 오신 박대용 전 임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신열 신임 총동문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회장의 사를 표하신 용단에 동문의 일원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총동문회 임원 추천을 밴드에서 접하고 열린 의견수렴에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현 사무총장님도 장기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사무총장에 21회 최동준님을 추천합니다. 추천사유는 총동문회 재정국장을 오랜기간 맡아 임무를 수행해서 동문회 전반적인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사무총장임무를 성공적으로 잘 하리라 판단됩니다. 특히 모교 기능부후원회 부회장을 맡아 말없이 많은 성금과 시간을 내어 열정으로 후배들을 격려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 협회에 임원으로 묵묵히 후원과 봉사를 하는 멋진 분입니다. 또한 건실하게 사업체 경영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총동문회 사무총장직을 충분히 잘 하시리라 사료되어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립니다. 총동문회 발전에 기여도 못한 제가 감히 추천의 무례함이 있다고 생각하신 동문님이 계신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구합니다.

- 13회 김광시 동문 -





2. 18대 총동문회에 봉사하실 사무총장님 및 국장님들을 지원하거나 추천한다는 것은 참 대단하고 참신한 발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21회 기계과 한석원입니다. 저도 김광시 선배님께서 추천하신 현 최동준 재무국장을 18대 사무총장으로 추천 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1. 멀게만 느껴졌던 총동문회와 기수별 동문회와의 거리간격을 좁혀주는 친구입니다. 2. 동문회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현 재무국장의 일을 헌신적으로 하는 친구이고 친구의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동문회에 후원하게 하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3. 동기들의 애사에 먼 길 마다않고 꼭 참석해 슬픔을 같이 나누는 헌신적인 친구입니다. 21회 정기모임 때 주차지휘봉을 흔들며 친구의 주차를 도우며 다리가 불편한 동기를 3층높이의 모임장소까지 식은땀을 흘리며 업어서 올라오는 친구 최동준을 보며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대단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의 피나는 열정과 노력으로 일군 우리 총동문회를 알기에 18대 총동문회 사무총장에 최동준 동기에게 맡겨도 잘해내리라고 굳게 믿고 적극 성원하겠습니다.

- 21회 한석원 동문 -

지난달 활짝 핀 벚꽃… “추억속에 봄날은 간다”

모교 재학생 들이 쉬는 시간에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

방과후 모교 운동장은 인근 주민들의 걷기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동네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 벚꽃을 감상하며 휴식하고 있다.

동쪽 울타리에서 바라본 벚꽃이 소담스럽다.

정문 옆 실습동 건물의 벚꽃도 자태를 뽐내고 있다.

설송 대신 심은 정문 입구의 벚꽃은 아직 어려 미약하다.

후문의 벚꽃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으며 꽃을 피우고 있다.

모교 입구의 벚꽃이 몇년만 지나면 벚꽃축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대통령 격려 말이 소년을 세계 굴지 엘리베이터 기술자 만들었다"

김기영(송산특수엘리베이터 대표. 14회) 동문 "고교 1학년 때 운명적 만남 인생 좌우"

동문들로부터 우리나라 굴지의 언론인 조선일보 5월 14일자에 우리 동문이라고 하는 김기영 송산특수엘리베이터 대표가 대서특필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즉시 총동문회 사무실 컴퓨터에서 김기영이라는 이름을 찾아보니 6회, 9회, 19회, 21회 2명, 23회, 27회, 30회, 31회 2명 등 10명의 동문이 검색되었다. 그러나 61세 나이로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 대충 14회 정도의 동문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다시 송산특수엘리베이터 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오래전에 011로 시작되는 전화번호와 14회 기계과 김운영이라는 이름이 검색됐다. 010으로 번호가 바뀌었을 것으로 보고 전화번호를 유추하여 전화를 걸자 진득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충남기계공고를 졸업한 김운영 회장님이십니까?"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즉시 "충기총동문회 회보 편집위원 8회 신도성인데 취재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말해주었다.

김기영 동문은 "원래 이름이 김기영이었는데, 고교시절 김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지냈다"며 "오래전에 이사 가면서 동문회보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동문회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기영 동문은 "올해 초 모교 강당 건물 등에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면서 모교를 방문했는데 직원들에게 모교 자랑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올해 3월에 모교 처음으로 14회 동기인 동문 이종업 교장이 부임했고, 5월에는 역시 14회 동기인 강신열 동문이 충남기계공고 총동문회장에 취임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소식에 김기영 동문은 매우 기뻐하면서 "강신열 회장하고는 3학년 때 같은 반으로 친하게 지냈다"며 "참으로 착한 친구였다"고 회상했다.

김기영 동문은 대전 중구 문화동 출생으로 어려서부터 모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며 지냈다. 문화초등학교와 보문중학을 나와 모교 기계과에 진학한 소년 김기영은 고교 1학년 때 일생일대의 전기를 맞았다. 당시 학교를 찾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하라"는 말을 직접 듣고 큰 용기를 얻었다. 이후 지금까지 평생을 엘리베이터에 바쳐 세계적인 회사의 대표가 된 것이다.

모교 졸업 후 처음 택한 직장은 세계 1위 엘리베이터 기업인 오티스.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11년 만에 사표를 내고 1994년 송산특수엘리베이터를 창업했다. 김 동문은 "대기업 하청업체가 되거나 외국 기술을 따라가는 대신, 수준 높은 한국만의 특수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그는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지하 350m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을 잇달아 개발했다. 모두 세계 최초이거나 송산만의 자체 기술을 이용한 엘리베이터다.

김기영 동문은 회사에 다니면서 한국에서도 건물마다 승강기가 역시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여 승강기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내엔 승강기 관련 전문가나 서적이 거의 없어, 영어나 일어로 된 원서를 찾아 읽고,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어깨 너머로 실무를 익혔다.

현재 (주)송산특수엘리베이터는 세계적인 승강기 회사로 유명하여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세계 곳곳에서 특수 승강기를 설치했다.

현재 한국엘리베이터협회 회장도 맡고 있는 김기영 동문은 주경야독으로 울산공대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며,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출간했고, '골리앗초대형엘리베이터' '비상구난용엘리베이터'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경사형 승강기' '헬리포트엘리베이터'등 다수의 특허를 갖고 있다.

김기영 동문은 2018년 12월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등 숱한 표창을 받았다.

김기영 동문은 "사업을 위해 외국에서 많이 생활하다보니 동문들에게 소원한 감이 있었다"며 "시간을 내어 모교 총동문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500명 타는 골리앗 엘리베이터 우리가 개발"

김기영 송산특수엘리베이터 대표〈조선일보〉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특수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15~20인승 규모인 일반 엘리베이터와 달리 한번에 500명까지 탈 수 있고, 50t 화물도 실을 수 있는 '골리앗 엘리베이터'다. 재작년부터 총 4대가 설치됐고, 현재 2대를 추가 설치 중이다. 이 승강기를 만든 사람은 송산특수엘리베이터의 김기영(61) 대표다. 김 대표는 2012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 들렀다가 근로자 수백명이 무거운 장비를 들고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30여년 전 대학생 때 조선소로 실습을 나가서 봤던 모습과 달라진 게 없더라"며 "산업 현장에서 수백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후 2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2014년 골리앗 엘리베이터를 세상에 내놨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현장에 설치됐고, LG디스플레이·삼성전자 공장 등에도 쓰이고 있다.

김 대표는 충남기계공고 1학년 시절 학교를 찾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하라" 는 말을 듣고 평생을 엘리베이터에 바쳤다. 그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설거고, 수직교통(승강기) 수요 역시 급증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Biz People
"500명 타는 골리앗 엘리베이터 우리가 개발"
김기영 송산특수엘리베이터 대표

《5면으로 기사 계속 》

"참고 기다리면 다시 일상 회복할 날 오리라 믿어"

유승복 동문(10회) 말레이시아국제학교 이사장 취임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유승복 동문(자동차과 10회)이 최근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제5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유승복 동문은 말레이시아 YCP 엔지니어링 및 무역, 유통, 엔터테인먼트 계열 자회사의 대표이며, 현재 월드옥타(WORLD OKTA: 세계한인무역협회) 본부 상임이사와 쿠알라룸푸르 지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말레이시아 수석부회장, 재마한인회 자문위원으로서 동포사회에서도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 9월 개교한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유치원, 초등학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어린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자존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과 재능 및 끼를 맘껏 펼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를 사용하는 국제중학교 진학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해서는 영어집중과정을 운영하는 등 말레이시아 상황에 맞춘 한국학교로 자리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유승복 동문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이 고향으로 모교를 졸업하고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다. 맨주먹으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엔지니어에서 글로벌 기업인으로 성장하여 자랑스런 한국인 한민족 동포대상도 수상한 바 있다. 유 단장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외에 한때 말레이시아 충청향우회장도 맡아 충청인의 단합을 도모했고, 충남금산인삼 홍보대사, 대전광역시 해외 협력위원, 건양대 기업인 교수 등으로 모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유승복 동문은 "고국에 갈 때 마다 감회가 새롭다"며 "코로나로 인하여 당분간 왕래가 뜸하지만 참고 기다리면 다시 일상을 회복할 날이 도래해 동문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 4면에서 기사 계속》

당시 국내엔 승강기 관련 전문가나 서적이 거의 없었다. 영어나 일어로 된 원서를 찾아 읽고,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어깨 너머로 실무를 익혀야 했다.

졸업 후 처음 택한 직장은 세계 1위 엘리베이터 기업인 오티스.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11년 만에 사표를 냈다. 1994년 송산특수엘리베이터를 창업한 김 대표는 "대기업 하청업체가 되거나 외국 기술을 따라가는 대신, 수준 높은 특수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했다. 이후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지하 350m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을 잇달아 개발했다. 모두 세계 최초이거나 송산만의 자체 기술을 이용한 엘리베이터다.

작년에는 화재가 났을 때 연기와 유해가스 등을 차단하는 비상구난용 엘리베이터(엑스베이터)를 상용화했다. 장애인학교인 천안 나사렛새꿈학교에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2곳과도 계약을 마쳤다. 서울 강남과 경기 용인의 주상복합 아파트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달 초엔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신제품(NEP) 인증을 받았다. 김 대표는 "불이 나도 작동하는 특수 엘리베이터로, 지난해 미국에서도 특허를 받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2014년부터 8년째 한국엘리베이터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한국 엘리베이터 시장은 신규 설치 기준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은 3위 시장"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분야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엘리베이터 시장 절반 가량은 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1997년 IMF 당시 국내 업체 상당수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고층 건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 승강기 교체 수요도 많다"며 "지금이라도 승강기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스스로를 '발명가'로 표현했다. 경기도 시흥시 본사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김 대표 명의의 10개 넘는 특허증이 붙어 있었다. 그는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여 매출을 올리는 식으로 쉽게 돈 벌기는 싫다"며 "우리처럼 특수 기술 개발을 고수하는 회사가 버티고 있어야 산업이 발전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성우진 기자〈조선일보 5월 14일자〉–

"최소 인원 참석, 방역에 만전 기하겠다"

오영안장군 · 임재엽상사 추모식 준비 회의

강신열 총동문회장과 이장수 자문위원 및 동문들이 오는 6월 4일 모교 호국영웅동산에서 열리는 호국보훈의 달 기념 고(故) 오영안 장군(4회) 25주기와 고 임재엽 상사(38회) 11주기 추모식을 개최를 앞두고, 5월 20일 오전 모교 총동문회 회의실에서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모교 호국영웅동산(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은 국가 시설로 해마다 추모식이 열리는데 지난해부터 총동문회 주관행사로 학교측 협조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참석한 동문들은 "성의를 다해 준비하고, 코로나 시국에 맞추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여 철저한 방역으로 행사를 치러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총동문회 16개 사업계획 논의"

강신열 회장, 백채준 · 한흥교 동문과

강신열 회장은 백채준 · 한흥교 동문과 함께 5월 12일 오후 3시부터 6시 10분까지 총동문회회장실에서 회의를 열고 총동문회 16개 세부 추진계획(1면에 게재)을 논의했다.

‘전국 넘어 세계로’ 멈출 수 없는 열정 - 기술장인 양성소 충남기계공고를 가다

[금강일보 창간 11주년 특집] 코로나 일상 희망을 맞다(5월 3일자)

이종업 교장(오른쪽)과 지도교사와 전국기능대회 출전 학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국 넘어 세계로’ 멈출 수 없는 열정

[금강일보 유상영 기자]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전염병에 아랑곳없이 자신의 꿈을 담금질하는 청춘들이 있다. 최근 대전기능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준비중인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대표 선수들이다. 그들이라고 왜 두렵지 않고 왜 불편하지 않겠는가만은 마스크로 인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열정 하나로 버티고 있다. 한 분야의 기술 장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코로나19 따위는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아직 채 약관도 되지 않았지만 여물대로 여문 10대들의 도전기를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그들의 열정

탄탄대로를 걷던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도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매년 3월 개최됐던 지역기능경기대회는 6월에 치러졌고,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당초 10월에서 9월로 앞당겨 열린다.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회에 출전한 20여 명의 학생들은 7개 직종에서 금·은·동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했다.

지난해 2학년이었던 김선재 군과 최준희 군은 당시를 최악의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처녀 출전하는 전국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단계 격상으로 학교에 올 수 없는 시간이 많아져 연습량이 충분치 못 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군은 절단기를 사용하는 등 몸으로 하는 작업이 많다보니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실력을 발휘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나? 지난해 경험을 디딤돌삼아 올해는 꼭 정상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땀은 배신하지 않았다. 지난 4월 대전기능경기대회에서 둘 다 금상을 수상한 거다. 김 군은 산업제어 전기분야에서, 최 군은 기계설계 캐드 분야에서다.

– 7면으로 기사 계속 –

모교 김지찬 선수 전국펜싱 개인전 금메달

제59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에서 괄목성적 올려

모교 펜싱부가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충북 제천시 어울림 체육센터에서 열린 제59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김지찬 선수(2학년)가 고등부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 했다. 모교 펜싱부는 작년 2020년도 7월에 개최된 제58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 3위를 시작으로 같은 달 7월 제4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전국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 1위, 8월에 개최된 제32회 한국중고펜싱연맹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3위, 10월에 개최된 제49회 회장배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1위로 전국 고교 펜싱 에뻬 단체전 최강자로 위상을 보였다.

직전 대회인 2021년도 3월에 개최된 제33회 한국중고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단체전 입상을 하지 못해 팀의 사기가 저조한 상황에서 이번 대회 개인전 우승은 앞으로 남은 전국 펜싱 대회의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모교 펜싱부가 연달아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개인전 1위를 한 김지찬 선수는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남고 에뻬 개인전 99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3학년 포함 전국 강자들을 상대로 차례대로 승리를 거두며 토너먼트의 최정상에 올랐으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교에는 펜싱부 전용연습실이 없어 일반 학생들과 강당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2021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당 공사로 인해 훈련공간이 없어 별도 공간에서 훈련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이번 대회 개인전 우승이라는 타이틀과 전국 최강팀으로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종업 교장은 매 대회 출전 전후로 교장실에서 선수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주며 따듯하게 격려하고 있는데, 모교 펜싱부에는 학생선

개인전 금메달 김지찬 선수

수들과 함께 연습경기도 하면서 선수들의 기량과 인성을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전철구(모교 34회) 코치가 있어 든든하며 현 2학년으로 구성된 펜싱부 학생 선수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강팀으로서의 위상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찬목 편집위원(12회, 모교 교사) –

수입 현황

기간 : 2021년 4월 28일 ~ 2021년 5월 25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광	3	서한수	20,000	기	14	송수헌	50,000
전	3	이우정	20,000	기	14	이황훈	50,000
자	4	남 득	20,000	기	14	한경환	20,000
전	4	이승원	20,000	기	16	김석래	20,000
전	6	김인수	20,000	기	16	윤석길	20,000
광	7	정학상	20,000	기	16	이계천	20,000
전	8	이준규	50,000	기	16	이언구	50,000
전	8	임헌표	50,000	기	16	이재흥	20,000
자	8	정기원	20,000	전	16	장보환	20,000
전	9	김만영	50,000	기	19	김경수	100,000
자	9	박동권	20,000	기	21	황희원	20,000
광	9	손중성	100,000	금	22	오윤영	50,000
전	9	오진우	20,000	기	22	이보윤	100,000
광	10	윤여갑	200,000	기	23	박봉구	100,000
광	10	정명권	20,000	금	31	김종현	20,000
기	11	전영봉	20,000	기	33	이재상	20,000
기	14	박찬호	100,000				

16회(3학년 10반 모임) 연회비

기	16	강경구	20,000	기	16	박태집	20,000	기	16	이영훈	20,000
기	16	강대규	20,000	기	16	배인봉	20,000	기	16	이은찬	20,000
기	16	구영일	20,000	기	16	배종식	20,000	기	16	이재선	20,000
기	16	김기선	20,000	기	16	설인철	20,000	기	16	이종재	20,000
기	16	김동출	20,000	기	16	성기정	20,000	기	16	장병옥	20,000
기	16	김성호	20,000	기	16	성수용	20,000	기	16	전종관	20,000
기	16	김연중	20,000	기	16	성윤창	20,000	기	16	제병국	20,000
기	16	김용삼	20,000	기	16	성한경	20,000	기	16	조교연	20,000
기	16	김재호	20,000	기	16	안영근	20,000	기	16	최현주	20,000
기	16	김철수	20,000	기	16	양병조	20,000	기	16	홍승국	20,000
기	16	김형주	20,000	기	16	오영현	20,000	기	16	홍준표	20,000
기	16	김홍주	20,000	기	16	오재덕	20,000				
기	16	노성우	20,000	기	16	이복선	20,000				
기	16	류봉현	20,000	기	16	이상직	20,000				
기	16	류창수	20,000	기	16	이상철	20,000				
기	16	박영호	20,000	기	16	이승종	20,000				
기	16	박철규	20,000	기	16	이영석	20.000				

회보광고비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기	18	장영우	100.000

전국기능경기대회 막바지 준비 박차

4동, 12동 리모델링 및 운동장 스탠드 보수공사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실습실 1차 리모델링에 이어 나머지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관련 내부 수선 및 환경조성 공사가 2021년 6월 초~ 8월 말 진행될 예정으로 업체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들어갔다.

공사내용은 4동과 12동은 석면철거공사를 2021년 6월 초 시작하여 6월 말에 끝내고 수선공사 및 리모델링을 8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외부환경 공사로는 외벽도장 및 청소, 운동장 스탠드 보수공사, 교내 도로포장 등도 함께 진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맞을 준비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모교 이종업 교장은 그동안 대대적으로 진행된 모교 리모델링 일부 공사가 하자가 많음을 지적하고 업자들에게 조속한 기일 내에 완벽한 마무리를 주문하는 등 분주하게 뛰고 있다. 무슨 일이든 애정과 열정이 깃든 곳에서 변화와 발전이 생겨나는 법이다.

아무쪼록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모교가 면모를 일신하여 발전하기를 바란다.

《 4면에서 기사 계속》

이들은 오는 10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전을 대표해 출전한다. 더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한 이들의 도전이 현재 진행형인 이유다.

문제는 코로나다. 다른 경쟁자들도 같은 입장이겠지만 연습 시간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주어졌다고는 해도 실제로는 되레 줄었다.

전국 모든 학교에서 방과 후 야간 실습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일터, 그래도 연마를 게을리 하지 않고 지속적인 이미지트레이닝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

이들에게 전국대회는 더 큰 무대를 위한 발판일 뿐이다. 여기서 안주할 것이라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일이다.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 말이다.

◆전국기능대회 입상, 그리고 국제기능올림픽 출전

올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이들에게 홈그라운드인 충남기계공고에서 열린다. 그렇다고 방심할 순 없다. 전국에서 모이는 내노라하는 인재들과 겨뤄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게 1차 목표이며 태극마크를 달고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최종 목표다. 만만한 목표가 아니다.

모두 4명이 출전하는데 지난해 전국대회 1·2위는 확정된 상태고, 올해 1·2위를 차지해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김 군과 최 군은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다. 이번이 고등학생으로서 마지막 대회다. 열심히 준비해서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최고의 성적을 거두겠다"며 "올림픽 출전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각 분야에서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야무지게 말했다.

산업제어를 담당하고 있는 천영석 교사는 "아이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다.

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보고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것"이라며 "본인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도움을 줄테니 최선을 다해달라"고 진심담아 격려했다.

◆기술장인 양성소…충남기계공고

충남기계공고는 1963년 설립돼 57년 전통을 자랑하는 중부권 최대 규모이자 명문 특성화고등학교로, 그동안 숱한 기술 장인들을 육성해 왔다. 학교는 대전·충남지역의 수많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을 배출해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수십년의 세월 동안 전통에 기초한 산업인력을 배출해 왔다면 현재는 직업 교육의 방향을 전환하는 변화를 통해 전통은 이어가면서 첨단 산업인력을 키워내는 학교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충남기계공고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뿌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계 분야, 전기·전자 분야에서 요구되는 실전 창의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충남기계공고의 교육 목표인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교육혁신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복학교 ▲교육 기회균등 교육복지 등을 실천하기 위해 학교장 이하 모든 교직원들이 나서면서 명문으로서의 자리매김에 이바지했다.

충남기계공고는 취업맞춤반 7개 과정을 운영한다. 과정은 CNC 선반, CNC 밀링, 산업제어, 용접, 기계설계 캐드, 귀금속 공예, 보석가공으로 세분화돼 있다.

《끝》

종합정비업
으뜸자동차공업사
자동차검사! 환경심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2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1500 FAX : (042) 282-1501 ,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 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 OK) 도 장 공 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 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제작 및 수리 여러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대표 장영옥(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누리상조
★ 매월 납입금 없는 후불방식 입니다.
◈기존 상조회사보다 저렴합니다.
대표: 나 익 성 (기 13회)
010-4433-0444

탐라돌구이
윤 여 갑 (10회)

H.P : 010-5454-1262
TEL : 042-823-888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07-4
♣대형 주차장 완비♣

CROWN 크라운출장뷔페
대표 이희범 (동문협찬업체)
결혼식/각종연회/칵테일파티/기업체행사/운동회 및 각종모임/바베큐/생맥주 파티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528번지
전화 : (042) 585-5500 휴대폰 : 010-5462-9919

※네이버에 한방몰을 검색해보세요.
세계인의 슈퍼푸드 미국판매1위
건강선물! 노니원액
대표 박봉구(23회) HP 010.2415.4477 TEL 1566-7516
물류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41-10 공장 | 충남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186
한솔바이오한방(주) 한방몰 www.hanbang-mall.co.kr under4477@hanmail.net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 e 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세무법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以楨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서기관, 북대전, 대전세무서 등 28년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KIA 기아자동차 남선대리점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동문이 되겠습니다."
카마스터 김 희 곤(16회) 동문차량 전담

TEL : (042) 486-0042
H.P : 010-3300-5838
FAX : (042) 525-4878

금산 왕대양꼬치 GEUMSAN WANG DAE LAMB

대표 권 경 중 (26회)
[32736]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16
Mobile : 010-3588-4135
예약문의 : 041) 751-2299

kt biz 공식파트너
HTM NET & COMMUNICATION (주)에이치티엠
정기채(기22회) 010-3411-7788
· 기업용 인터넷 기가오피스, 오피스IP, 네트워크보안
· 기업용 전화 인터넷전화, 일반전화, 전국대표번호
· 지능형 CCTV 영상 보안 감시
· 네트워크공사 신규사무실, 사무실이전 네트워크 공사
가입센터 1522-2536
www.happyinternet.kr

※동문회 운영에 연회비 납부가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정성이 소중합니다. 1년에 한번 내시는 연회비 2만원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는 동문회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동문회보 협찬광고 받습니다.

충기동문들이 애독하는 설송소식에 동문 기업의 협찬광고를 저렴하게 게재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